

국 제 리 뷰

-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
이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The China Gender Facility(CGF) 소개

CHUNG Eun-Hee (Ms.) (Assistant Project Manager For Education UNESCO Office Beijing)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여성 2000 :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

이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1-12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가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이행 15주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였고, 동시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 북경행동강령 이행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연계

유엔은 2000년 새천년개발선언(the Millenium Development Declaration)을 채택하고, 2001년 빈곤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하였다.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는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달성, ③ 양성평등 추구하고 여성의 권한강화, ④ 아동사망을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빈곤한 국가의 경제사회 여건을 개선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이들 새천년개발목표의 주요 목적이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은 북경행동강령을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한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젠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새천년개발목표 3과 새천년개발목표 5이지만, 양성평등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서 다른 7개의 목표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A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경행동강령을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하여 이행하는 것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다.

제 54차 여성지위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 이행과 새천년개발목표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국가들과 이해 당사자들(stakeholders)의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증진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들과 도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성인지적 개발지표 등을 만들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성별분리통계와 성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각국은 성인지적 통계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것을 요청하였다. 북경행동강령의 몇몇 분야에서 그 이행 정도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데, 이는 그 분야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회의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목표인 만큼,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유엔경제사회이사의 각료회의(the annual ministerial review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유엔총회(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for the General Assembly)에서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을 한다. 그리고 이들 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가 절대적임이 재차 강조될 것이다. 한편, 유엔경제사회이사의 2010년 각료회의(the annual ministerial review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국가발표 (National Voluntary Presentations)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2010년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인 양성평등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권고하였다.

- 북경행동강령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시행에 있어서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증진을 우선시 할 것
-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과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국제경제사회문화권리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ILO협약(the ILO Conventions) 등에 준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법, 정책, 관습 등을 점검하고 철폐할 것
- 양성평등 관련 기구들이 정책, 프로그램, 전략의 형성, 이행,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과 분석을 할 것
- 향후 국가가 인구조사(census), 가구조사를 실시할 때 성, 연령 및 기타 변수를 포함하여 지금 보다 더 발전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시행할 것

- 성 인지적인 일자리와,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할 것
- 여성을 위한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철폐할 것
-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성인지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산수립과 분배 현황을 검사 평가하여 그 결과에 주목 할 것
- 양성평등과 여성과 여아의 권한 증진을 위한 개발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

2. 주요 패널 논의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을 점검하며,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패널토의도 진행되었다.

가. 경제위기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패널 토의

우루과이 국립대 교수인 Alma Espino는 오늘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의 참여도 증가하는 등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기인한 여러 형태의 차별이 경제 분야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고, 경제위기 시 여성의 빈곤과 남녀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국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학자인 Mona Khalaf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여성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성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지출 감소에 따라 여성의 고용이 감소하고, 여성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지적 고용전략 수립과 소액대출(Micro-credit) 사업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패널리스트들은 경제 위기 시의 무임금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과 비공식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 장치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사적 영역인 개별 가구 안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나.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패널 토의

Sonke 젠더정의 네트워크 공동국장과 세계남성연맹의 공동의장(Co-Director of the Sonke Gender

Justice Network and Co-Chair of the Global MenEngage Alliance)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Dean Peacock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소년들의 이에 대한 참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1995년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폭력에 대한 남성과 소년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인권변호사 Susanna Chiarotti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과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인 Walter A. Fillemann는 인권과 난민관련 국제법은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법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전쟁 시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역할 패널 토의

정책 다이아로그 센터(Center for Policy Dialogue)의 Rounaq Jahan은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구를 만들고 성 주류화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국가기구의 입지가 불안정하거나 주변화되는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미진한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적 의지가 여성관련 국가기구를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국가기구가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젠더 전문가인 Mary Rusimbi는 성평등 증진과 성 주류화를 위해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개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성 주류화는 성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촉매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 인지예산은 성주류화를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국가에서 성 인지예산을 여성부와 같은 국가기구에서 활용하도록 하면서도 이것을 실행하는 주요 부처는 재정부가 되고 있어 다른 부처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의 결과로서 7개 결의안 채택

12일 동안 개최된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의 마지막 날에는, 그 간 논의되었던 7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중에서 팔레스타인 여성의 지원은 가장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다른 6개의 결의안과는 다르게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채택된 7개의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여성, 여아 그리고 HIV/AIDS (Women, the girl child and HIV/AIDS)
- 분쟁지역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과 볼모로 잡혀 있는 여성과 여아의 석방 (Release of women and children taken hostage, including those subsequently imprisoned, in armed conflicts)
- 팔레스타인 여성의 지원 (The situation of and assistance to Palestinian women)
-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Women's economic empowerment)
- 여성 권한 강화를 통한 모성사망율과 질병으로 사망 제거 (Eliminating preventable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through the empowerment of women)
- 유엔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양성평등지원과 여성의 권한 강화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he United Nations for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by consolidating the four existing offices into a composite entity)
- 여성의 생식기 제거 소멸 (Ending female genital mutilation)

한편, 2011년 제55차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완전고용과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남성과 동등한 접근성 강화와 함께, 여성과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 참가(Access and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to education, training,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for the promotion of women's equal access to full employment and decent work)”를 주제로 개최된다.

4.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를 연계하여 새천년개발목표의 성 주류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이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새천년개발목표의 성 주류화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초 우리나라가 OECD/DAC에 가입하면서 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이런 우리의 국제적으로 변화된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목적으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China Gender Facility(CGF) 소개

CHUNG Eun-Hee(MS.)

Assistant Project Manager For Education UNESCO Office Beijing

들어가는 말

1995년 제4차 북경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BPFA)’이 채택된 후, 전세계적으로 양성평등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이 탄생한 곳,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 실행과정에서 여성문제는 등한시 되어 왔다. 2010년에 발간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젠더에 관한 인간개발보고서 (Asia-Pacific Human development Report)를 보면, 다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저개발국가보다는 비교적 양성평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의 평가항목인 교육·고용, 건강·사회적 서비스·소득보장 등의 면에서, 중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뿌리깊이 남아있는 여성 차별적 사회적 분위기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 정책인 한가정 한아이 정책으로 인한 여아영아 살해, 가정폭력, 높은 여성자살률 (특히 농촌여성,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남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의 기회 등이 현재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이자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과제들이다. 중국정부는 국가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지역간·개인간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조화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안에서 양성평등은 복지후생의 개념 정도로 이해되고는 있지만,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문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도 있다.

유엔기구를 비롯한 개발기구들은 ‘양성평등’ 개념을 교차주제(Cross-cutting theme)로 개발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폭넓게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개발프로그램들은 직·간접적으로 중국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개발에 관한 유엔의 기구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을 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젠더이슈에 관한 협의체 the United Nations Theme Group on Gender (UNTGG)가 조직되었고 중국의 양성평등개선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설립 이후, 참여 단체는 점차 국제개발 NGOs, 다자간·양자간 개발기구, 중국여성연맹 (All China Women's Federation)으로 확대되었고, 협력하에 중국에서의 여성과 개발문제를 부각시키는 일을 주도해오고 있다. 2004년 양성평등증진을 직접적 목표로 삼고 있는 the China Gender Facility (CGF)는 이 UNTGG에 의해 시작되었다.

CGF 개요

CGF는 연구와 권익옹호(Advocacy) 활동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시켜, 중국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다자공동원조기금이며, 여성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정부·시민 단체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UNTGG의 사무국인 유엔 여성기금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이 원조기금프로그램의 행정 및 진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금의 이사회격인 전문자문위원회 (the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TAC)가 프로그램 담당자 인사문제, 사업제안서 검토 및 사업기관 선별 등의 의사결정기구이며, TAC 멤버는 기금의 기부기관과 중국여성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CGF는 2010년 현재 제3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4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교육·빈곤퇴치·기후변화·양성평등 등의 다양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엔 공동 사업들 중에서 본인이 CGF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앞서 잠시 언급한 공동으로 조성된 독특한 방식의 기금이라는 점과 이 프로그램의 기금을 받아 실행하는 기관의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공동기금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상세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CGF의 성과 및 성공 요인

• 양성평등 강화와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

‘양성평등’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고, 여전히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접근 및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 수혜 기관 중 여러 주요 여성 단체들이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정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주류화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중국여성운동의 주체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 새천년개발목표 등의 국제기준들을 자주 언급하여 중국정부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약속을 일깨워 주고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중국 파트너 기관의 역량강화

기금 수혜 기관을 역량강화하는 방법으로 CGF가 실행하는 활동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 사업 초기 시점에 ‘권익옹호’, ‘성과중심관리 (Results-Based Management: RBM)’, 성 분석 (Gender Analysis)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치적이고 과대 포장된 선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권익옹호 캠페인에 대한 바른 이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중심관리 방법은 유엔을 비롯한 개발단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접근법으로,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명확한 결과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전달했고, 이 연수를 통해서 RBM의 언어를 사용한 프로젝트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개선된 결과를 가져왔다. 양성 평등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입된 성 분석에 대한 교육은 젠더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혜기관들과의 주기적인 상호작용하고 참여적인 환경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몇몇 수혜기관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의 협력안을 기획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발간해서 외부기관으로 배포하는 일도 하고 있다.

• CGF 프로그램의 목적과 전략의 적절성 및 현 중국 상황과의 연계성

중국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고려하고 중국의 개발 단계에서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안에서 CGF의 목적과 전략은 세워진다. 가정폭력, HIV/AIDS, 이주와 인신매매, 여성의 정치참여 등이 현재 중국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풀어야 할 당면과제들이고, 이 현안들을 다루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주기의 효율성 및 목적과 결과의 일관성

전반적으로 수혜기관들의 프로젝트 운영·관리측면에서, 프로젝트 기획과 보고, 그리고 성 분석에 근거한 기획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수혜기관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단순하고 명료한 보고서 작성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수혜기관의 행정적 짐을 덜어주고 있다. UNIFEM이 지속적인 멘토링을 해줌으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목적과 결과가 논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연계되어지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요소로서는, 우선 “유엔 브랜드 (UN Brand)”를 들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안을 내놓더라도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끌어올리는데는 역부족이었지만, 유엔이라는 국제적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와 연계된 연구결과라는 것으로 더 많은 관심과 정부 고위

급 관리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요소로는 기금 기부기관들의 조건없는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들 수 있다. 기부자로서 의사결정의 지위를 갖지만, 기부기관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중국 현실을 반영한 양성평등 개선 및 여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CGF 대표적 성공 사례

“수조(Xuzhou)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중국 중앙 정부의 인권을 고려한 차원에서, 중국 내무부는 2003년부터 노숙자나 무직자들 구급 시설을 노숙자나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쉼터로 전환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수조 보호 시설에 있는 5개의 방에 20개의 침대를 갖춘,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열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쉼터 관리자가 일률적으로 쉼터 체류기간을 열흘로 정하고 실행했으나, 피해여성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료 숙식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여성의 체류기간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침실로 쓰였던 방을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독서·운동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였다. CGF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도움을 얻어서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자원활동가로서 그들은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소책자를 택시 승객에게 나눠주는 일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쉼터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교의 복지학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원활동과 지역 NGO Xinyuan (지역 자원활동가 양성 기관)으로부터 187명의 자원 활동가의 참여로 가정폭력에 관한 사진전과 ‘White Ribbon Campaign’ 과 같은 권익옹호 이벤트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 남학생 등 남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쉼터 관리자는 그들의 적극적 활동을 담은 영상자료를 만들어 그들의 활동 또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내무부는 이 성공적인 “수조 모델”을 중국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구상하였고, 수조 쉼터에 전국 각지의 쉼터 관계자들 70여명이 방문하여 이곳의 활동과 경험을 배워 갔고, 이 수조 모델을 본받아 활동하는 곳이 10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가정폭력’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수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가 CGF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막대한 파급력을 이뤄낸 경우이다.

“시안(Xian)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전략 개발 프로젝트”

여성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지방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GF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법개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강화라는 주제로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연수는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지방법원 관계자 지방검찰, 여성법 전문가 협회, 인민대표회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실무위원회, 산시지방 여성연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법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부족한 법지식으로 인해 정책관련 용어와 법관련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 교육연수를 통해서 법에 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병행된 성인지교육연수를 통해서 여성에게 불합리한 법조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성희롱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지방법과 중앙법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판사, 변호사, 법률연구가, 노동사회보장부 공무원, 여성연맹, 노동조합, 인민대표회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 네트워크회원들은 노동권리와 여성권리에 관련된 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또한, 네트워크 회원들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방문연수의 기회도 제공되는 등,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판매부수가 가장 높은 지방 경제지인 Huashang신문에 법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었고, 1개월 간 결혼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전화(Hotline)도 개설 운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가사도우미조합을 조직을 돕는 옥스팜 지원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지원하여 이 가사도우미조합이 대규모 노동조합에 흡수되는 일을 도왔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사도우미의 현황을 조사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사도우미의 실정과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한 법적조항 개월에 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 법령은 입법의결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가사도우미조합과 고용주연합의 중재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전에 실행했던 ‘상담전담전화 (Hotline)’ 를 도입하여 가사도우미조합이 직접 상담전담전화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지방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사도우미에게 교육연수를 실행하는 등 가사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해오고 있다.

이 시안 가사도우미조합은 500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진 조합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한부모회원들이 그들만의 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시안 여성연맹으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확보했다. 이들 조합회원들 또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권리 신장을 위한 전략도 모색하는 등 그들의 권리 찾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남성가사도우미의 조합회원자격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이 시안 프로젝트 또한 연구 및 권익옹호를 위한 CGF의 소규모 지원이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준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맺는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사업별로 수백명이 연수를 받았고, 수 건의 입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몇몇 경우에는 통과된 법안도 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권익옹호 행사도 치러졌다. 적은 예산 대비, 결과는 보다 효율적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평가도 있다. 본인은 이러한 수치들로 표시되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주목하지만, 가정폭력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등에 대한 사회 의식의 변화나 이 프로젝트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치적 기반 형성 등과 같은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얻게 된 의미심장한 변화들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하나의 유엔이라는 표어아래, 각 기구의 비교우위에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개발국가의 당면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유엔 공동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한대로 분명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도 있고 대규모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관료조직인 유엔 기구들의 행정적 비합리성, 다수의 프로그램 관계자의 소통의 문제 등 여러가지 극복해야 할 난관도 있다.

CGF는 유엔뿐만 아니라 다자 · 양자간 기구 및 사기업까지 참여하는 더욱 폭넓은 공동 프로그램이면서도, 행정적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UNIFEM에 의한 단일의 행정 및 프로그램 업무 추진으로 더욱 긴밀하게 프로젝트 수혜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CGF는 다른 대규모 유엔 공동 프로그램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CGF가 양성평등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프로그램 발전 모델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참 · 고 · 자 · 료

- Concept Note - China Gender Facility (CGF)
- CGF Operational Guideline
- CGF Administrative Guideline
- Report of An Independent Evaluation on the China Gender Facility, December 2007